

위원회소식

임시 위원총회 개최

위원회는 9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2006년도 위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기존 위원들과 8월 31일로 임기 만료한 위원의 후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총회에서는 노향기 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과 이도영 충북중재부 중재위원이 3년 임기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 업무회의 개최

서울중재부는 지난 6월 19일 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업무회의를 열고, 2006년 상반기 업무경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중재부도 중재부별로 상반기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선심위, 지난 6월 31일부로 활동 마감

지난 1월 31일 설치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 변호사)가 지난 6월 31일부로 5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번 선심위는 18차례 걸친 회의를 열어 388개 정기간행물을 심의, 그 중 자체심의 53건, 신청심의 25건에 대해 경고문 게재 등을 의결했다.

행정법원, 위원회 정보비공개 결정 내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지난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은 원고 황요섭 씨가 위원회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 업무와 정보를 국민이 원할 때 공개토록 명시한 법으로, 황요섭 씨는 지난 해 11월, 위원회에서 생산한 2004년도 문서목록을 청구했고, 이에 위원회는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원고는 이번 판결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수재의연금 기탁

위원회는 지난 장마철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200만 원을 전국재해구조협회에 기탁했다.

직원 혁신 워크숍 실시

사무처 직원 혁신 워크숍이 지난 6월 9, 10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양지파인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의 「성(性) 인지」 향상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재인 원장과 이상화 강사를 초청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예방”이란 주제의 교육을 실시했다. 김 원장과 이 강사는 교육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며, 남녀평등 직장문화 만들기에도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기획혁신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업무 혁신 워크숍」의 경과 및 향후 혁신 계획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각계인사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토론회 열려

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전주시 코아 호텔에서 전북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인사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혁남(전북중재위원) 전북대 교수가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사의 취재환경 변화, 언론중재법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유길종(전북중재부장)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가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중재위원,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하여 현재결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는 조수정(서울제6중재부 위원) 변호사가 맡았다.